

◆ 교회목표 ◆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렐 18:1)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누가복음 14:23)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13)

발행처: 대한예수교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THE WEEKLY CHOONG - HYUN 발행인:신성중 편집인:우기전 편집국장:조선근

무덤속에 계셨으나 주는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기쁨의 예배와 각종행사로
여의도에서 부활절연합예배로 모여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부활주일이다. 온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명절로 지키는 부활절은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하기 위해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리며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다.

여의도 광장에서 전 교회가 참가하는 부활절연합예배가 드려졌다.

우리 교회는 지난 주일 (Ⅰ, Ⅱ, Ⅲ, Ⅳ부 예배)에 성찬식을 가지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을 가졌고 이어 고난주간에는 주님의 고난으로 팔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새생명의 삶을 누리게 하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보냈다.

또한 고난주간 중 금요일에는 전교인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결심하면서 하루를 보냈다. 그 후에 맞는 오늘 부활주일은 우리로 새롭게 태어난 감격과 감사와 기쁨으로 맞게 하고 있다.

부활주일을 맞으며 교회는 주일예배를 부활절 축하예배로 드리며 부활을 맞는 기쁨과 감사를 전한다. 신성중 목사는 Ⅱ, Ⅲ, Ⅳ부 예배에서 고린도전서 15장 12-19절의 본문으로 "부활이 없으면"이란 제목으로 설교하며, Ⅰ부에서는 권성수 목사가 고린도전서 15장 50-58절의 본문으로 "우리도 변화하리라"란 제목으로 설교한다.

한편 주일저녁 찬양예배시간에는 실로암찬양대가 바하의 부활절을 위한 칸타타 '무덤속에 계셨으나 주는 부활하셨다'를 연

주하여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함께 기쁨을 나눌 것이다.

각 교회학교에서도 부활절달걀 콘테스트, 연극, 찬양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등을 가져 기쁨을 함께 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

활의 새 생명을 주신 오늘, 부활주일을 맞으며 우리는 감사와 기쁨과 아울러 우리의 삶의 근본이며, 우리의 생활의 중심이신 주님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실하고 책임있는 자세와 진지한 삶으로서의 추구를 다짐하는 일들이 각 개인마다 있어야 할 것이다.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부활절 축하음악예배 실로암찬양대, 바하의 부활절칸타타

오늘 부활주일을 맞으며 저녁 찬양예배 시간에는 실로암찬양대가 부활절 축하음악예배를 드린다. 바하의 '부활절을 위한 칸타타'를 연주하게 되는데 이곡은 연주면에서나 해석면에서나 난해하다는 평을 듣는 곡인데 어떤 면에서는 고전적인 교회음악의 맛을 볼 수 있는 곡이기도 하다.

이 곡은 먼저 서곡이 연주된 후 일곱부분의 변주곡 양식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 일곱 부분의 모든 곡에는 코랄의 선율이 조금씩 변주되어 어김없이 나타나며, 모든 곡의 마지막 부분은 '할렐루야'로 끝맺음을 한다. 지휘에 조신욱, 반주 임효선, 베이스 독창에 최덕석.

서곡	오르간
Ⅰ 무덤속에 계셨으나 주는 부활하셨다	합창
Ⅱ 죽음이 쏘는 힘을 그 누가 물리치랴	여성합창
Ⅲ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테너합창
Ⅳ 죽음과 생명의 싸움	합창
Ⅴ 주는 유월절 어린 양	베이스독창(최덕석)
Ⅵ 기쁨으로 축하하자	합창
Ⅶ 주님만 따라 살리라	합창

4월의 주요행사

- 1(금) 전교인 금식일
- 2(토) 피택장로 교육시작
- 3(주일) 부활주일
- 4(월) 농어촌목회자 사모 수련회 (충현기도원)
- 6(수) 정기당회
- 7(목) 청지기훈련 시작 (5/27까지)
- 7(목) 선교지 방문 및 성지순례 (4월 29일까지)
- 10(주일) 제직회 (1/4분기)
- 10(주일) 농어촌 교역자 초청세미나 1차 설명회
- 18(월) 농어촌목회자 수련회 (충현기도원)

충현경로대학 개강예배

4월 14일(목) 오전 11시에 베다니홀

94년도 1학기 충현경로대학 개강예배가 4월 14일(목) 오전 11시에 베다니홀에서 드려진다.

충현경로대학은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에서 오후 5시까지 모이는데 오전에는 노인들의 생활에 필요한 신앙, 건강, 가정 등의 특강과 오후에는 부별 특별활동시간으로 서예, 찬양, 원예, 꽃꽂이 등의 시간을 갖고 학기 중 2차례의 야외학습도 가질 계획이다.

경로대학은 60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며 불신자도 입학할 수 있다. 1학기는 4월14일부터 6월16일까지 10주간이다.

목회자 및 사모수련회

4월 4일, 18일 저녁에 시작해서 3박 4일씩

충현기도원은 자체 프로그램으로 지난 해에 이어 두번째로 목회자 및 사모 수련회를 갖는다. 주로 농어촌교회의 목회자 및 사모를 대상으로 열리게 되는 본 수련회는 목회자와 사모반으로 나뉘어져 열리게 된다.

4월 4일(월)부터 7일(목)까지는 사모수련회가, 4월 18일(월)부터 21일(목)까지는 목회자 수련회로 모인다. 대상은 교파 구분 없이 전국의 목회자와 사모로 전화로 접수가 가능하며 각반 200명을 선착순으로 접수하게 된다.

강사로는 김창인 원로 목사와 당회장 신성중 목사, 충현기도원 지도 유창무 목사이다. 문의처는 0347)64-4425, 4472 (충현기도원)

접수비는 1인당 만원인데 생도 50명 미만의 교회 목회자 및 사모는 무료이다.

교통편은 충현교회에서 당일(4일, 18일) 오후 5시에 출발하며 집회 시작은 오후 7시부터이다.

3월25일 2차 학습, 세례식에서 309명 학습·세례

지난 3월25일(금) 갈릴리홀에서 금년도 두번째로 학습·세례식이 거행됐다. 이날 식에서는 학습자 128명, 세례자 96명, 유아세례자 50명, 입교자 27명, 개종자 8명 총 309명을 내었다. 이날 식은 당회장 신성중 목사가 집례했고 최인근, 김양홍, 임성환, 성봉환 목사가 함께 세례를 베풀었다.

금주의 청지기 훈련

4월 7, 8일 양일간 1,2,3교구

오후 6시 30분까지 교회 집합하여 기도원으로

금주부터 94년도 청지기 훈련이 시작된다. 금년의 청지기 훈련은 충현기도원에서 1박 2일로 진행되기에 더욱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참여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태도가 요구된다.

금주의 훈련 해당자는 7일(목) 오후 6시 30분까지 교회에 집합하여 저녁식사를 하고 명찰 및 훈련복을 지급받고 인원점검 및 오리엔테이션을 한 후 오후 7시 30분에 기도원행 버스를 타게 된다.

충현기도원에 도착하여 오후 9시부터 저녁집회가 시작되며 다음날(금요일) 오후 4시에 수료식을 하고 4시 30분에 기도원을 출발하여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된다.

이 청지기 훈련은 직분자 전원(교역자, 장로, 안수집사, 권사, 남녀서기관, 권찰, 교사, 찬양대원, 교회직원)과 일반 성도중 청지기 훈련을 받기를 원하는 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해당자는 미리미리 준비하였다가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마

태복음 26장을 보면 중요한 사건이 크게 네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난에 대한 네번째 예고(1-5절),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한 기록(6-13절), 가롯 유다의 배신(14-16절),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성만찬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본문에 보면 이러한 예수님의 수난절을 예비한 세 가지의 준비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유월절을 준비했고, 둘째로 가롯 유다는 예수님은 온 삼십에 팔기 위해서 배신의 준비를 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식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특별히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사건은 오늘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1. 예수님께 향유를 부음

(1) 향유를 부은 사건은 동일한 사건인가, 다른 사건인가 성경에 보면 향유를 부은 사건이 적어도 두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본문인 마태복

음과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사건, 또 하나는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이 두 사건을 하나로 보느냐 둘로 보느냐에 대한 굉장한 논쟁이 있습니다. 하나로 보는 사람들은 이것이 구전 기간 동안에 차이가 생긴 것이라고 하지만 저는 이것을 다른 두개의 사건으로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7장 36-38절에 있는 말씀과 다른 말씀을 비교해 보면 세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장소가 다르고(바리새인의 집과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 둘째는 시간이 다르고(누가복음은 공생애 초기인데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종려절 전날이거나 수난주간 수요일로 기록됨), 셋째는 사람이 전혀 다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죄인인 한 여자'라고 했는데 이것은 틀림없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2장 3절을 보면 본문의 마리아는 '베다니의 마리아'입니다. 이렇게 볼때에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은 두번 일어났다고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다니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을 기록한 요한복음(12:1-8)의 기록과 마태복음(26:6-13)의 기록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사건이 수난주간 전에, 즉 토요일에 일어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본문에는 수난주간 중간, 즉 수요일에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가 수난주간 가운데에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가롯 유다의 사건과 이 사건을 비교, 대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롯 유다는 온 삼십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버리는 그런 배신행위를 했지만,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으면서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일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2) 향유를 부은 여인과 향유

본문에 나오는 한 여자는 요한복음에 보면 베다니의 마리아라고 이름까지 나왔습니다. 즉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누이이며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입니다. 그러면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향유는 어떤 것일까요? 본문 6절에는 그냥 향유라고 했지만 요한복음에는 '나드'라고 좀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나드라는 기름은 나르도스타키스 자타만시(nardostachys jatamansi)라고 하는 진 이름 가진 식물에서 채취되는 향료로써 수리아, 인도, 하랄라야 등에서 생산되는 아주 귀중하고 값비싼 향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이 매우 짙어 가까이 가지 않으면 향이 안나고 잘 보관했던 것입니다. 옥합이란 대리석과 비슷한 실크명제의 알라베스터라고 하는 옥의 일종으로 만든 병인데 둥글고 목이 길게 생겼습니다. 이 옥합은 굉장히 쉽게 부서지기 때문에 무슨 들맹이나 망치를 사용하지 않고 손을 다치게 않고도 손으로 깨뜨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 향유의 가격은 얼마에 배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 가격은 노동자가 3000일, 즉 일년 동안 일을 해야 받을 수 있는 품삷입니다. 예 돈만 가져면 5,000원을 먹을 수 있는 굉장한 돈입니다. 어쩌면 마리아는 결혼비용으로 쓰게 위해 이 값비싼 향유를 간직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3) 문둥이 시몬

성경에 보면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십여명 가까이 나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이 사건이 일어난 집을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베다니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보아서 아마도 그는 나사로의 아버지이거나 마르다의 남편이 아니겠느냐는 추측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아무 곳에도 이것을 증명할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문둥이 시몬이라는 것인데 이 말은 지금은 문둥이가 아니지만 과거에 문둥병에 걸렸던 경력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

충현강단



주께 기름부은 여인 (마 26:1-13)



신성종

<목사·당회장>

가 현재 문둥병을 가졌다면 예수님이 그 기정을 방문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아마도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그 병에서 해방이 되어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으로 바로 이러한 잔치를 펼칠 한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2. 이 사건이 주는 교훈

(1)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원하셨습니까?

사실 예수님은 이제 마치 않아서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제자에게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마이동풍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는 베니제 또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제자들의 자세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성경에서 경고할 때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까.

(2)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영광을 압혀주신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며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영광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영광을 또 내려내주십니다. 여기에 보면 기름부음에 대한 세 가지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마리아의 자세는 경외와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높이는 신앙행위였고, 헌신의 표적였습니다. 둘째로 제자들은 이것을 허버로 본 것입니다.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가롯 유다는 그것을 이기적인 동

기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선순위로 보아서 마리아가 행한 것과 같이 내 장례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더 시급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그들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말고 항상 너희들이 보살펴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 안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장사를 위하여"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이 죽은 뒤에 그 시체 위에다가 향료를 발랐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을 위해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죽은 뒤에 묘지를 좋은 것으로 쓴다든지 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살아계실 때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마리아는 정말 좋은 일을 행한 것입니다.

(3) 본문은 마지막 있개될 축복의 내용을 보여줍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칭찬한 것으로 보아서 세상을 위해서 한 일들, 쉽게 말해서 돈을 많이 번다든지, 학교를 짓는다든지, 업적을 남긴다는지 하는 것들이 주님께 칭찬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서 16:7-12를 보게 되면 많은 왕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들이 한 여러 가지의 업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치를 얼마나 잘했느냐, 경제를 얼마나 잘 다스렸느냐, 문화를 얼마나 향상시켰느냐 하는 그런 것으로 그들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느냐, 그들이 신앙적으로 어떻게 살았느냐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가서는 주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느냐, 신앙적으로 어떻게 살았느냐, 주님과 어떻게 지냈으며, 어떻게 주의 일을 했느냐 하는 이것이 남는다는 말씀입니다.

(4)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자신이 가장 아끼는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바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께 대한 헌신과 충성은 때때로 사람으로부터 반대받고 조롱에 직면할 때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리아는 굉장히 중요하고 역사에 영원토록 기념이 될만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제외하고는 이 여인이 한 일에 대해서 칭찬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낭비했다는 반대와 비난을 받았고, 조롱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 교회의 일을 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칭찬해주기를 바라다면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우리가 선행하고 귀한 일을 할수록 반대세력이나 해방꾼은 언제나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칭찬받는 그것 하나만 가지고 만족해야 하고 그것만 가지고 감사해야 합니다.

(5)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자신이 가장 아끼는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바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께 대한 헌신과 충성은 때때로 사람으로부터 반대받고 조롱에 직면할 때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리아는 굉장히 중요하고 역사에 영원토록 기념이 될만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제외하고는 이 여인이 한 일에 대해서 칭찬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낭비했다는 반대와 비난을 받았고, 조롱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 교회의 일을 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칭찬해주기를 바라다면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우리가 선행하고 귀한 일을 할수록 반대세력이나 해방꾼은 언제나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칭찬받는 그것 하나만 가지고 만족해야 하고 그것만 가지고 감사해야 합니다.

이제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일을 결정할 때 항상 원리를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을 할 때, 주님이 나와 같은 입장에 있다면 어떻게 결정을 하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원리 속에서 모든 일을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2000년사는 여성도들의 많은 숨은 봉사가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작게는 가정 안에서든 때때로 희생없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 아내의 눈물, 땀, 절제하는 피를 통해서 한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물론 잘로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께서 큰 일을 많이 하십니다만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마한 일들은 거의 다 여성도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앞으로 이러한 봉사와 희생이 계속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봉사가 베다니의 마리아처럼 성경에 기록되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것은 꼭꼭히 모릅시다. 그러나 주님께는 큰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기록한 책에 귀하게 쓰임받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시간 연속기도에 참여하고나서 불평과 걱정이 큰 감사로

김 경 숙
(집사, 2교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빌 4:6-7) 말씀하셨건만 3월 3일 새벽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동안 남편과 함께 연속기도회 담당임을 연락 받고 불평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자지 않고 깨어 있다 나오자니 늦은 시간이고 자다 일어나서 나오자니 깨어나기 힘든 시간이라서 제일 어려운 시간을 배정 받았다고 투덜대며 앞 순서 집사님께 더 하시라는등 다음 순서 집사님에게 좀 일찍 나와 대신 하시라는 등 책임을 회피하려고 힘을 썼다. 그러나 누가 그 책임을 맡아주겠는가?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는데 순서지를 접어

찬송가에 끼워다니며 날짜가 다가올수록 더 많은 불평과 걱정을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런 모습을 회개시키시며 내 마음을 평안하게 인도해 주셨다. 내가 그 시간을 배정받지 않았다면 다른 누군가가 담당해야 했을텐데 감당할만한 자라고 인정받아 그 어려운 시간을 배정받지 않았겠나 생각하니 기쁨이 넘쳤고 어려운 시간을 나에게 맡겨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불평했던 나의 모습이 부끄럽게 느껴졌다.

내가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하면 앞 순서 집사님이 일어설지 못한다는 걱정과 긴장감 속에 시계벨을 맞춰놓고 3시간 정도 잠을 잔 후 새벽 2시 교회에 도착하여 우리 부부에게 배정된 2시간의 기도 시간을 혼자 부르짖으며 기도하기 시작했다.

기도의 용사로 뽑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의 기도를 시작으로 교회의 말씀충만, 기도충만, 성령충만을 위해, 원로 목사님과 당회장 신성중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 나라와 민족과 대통령을 위해, 남녀 교역자와 장로, 교회일꾼들의 사명감당을 위해, 북한선교와 교회학교 부흥을 위해, 선교사 파송을 위해, 교구의 부흥과 전도회, 각 부서들의 배가를 위해, 제2교육관 신축을 위해 등등 많은 기도의 제목을 날날이 주님께 아뢰며, 극조있는 기도인 찬송가를 마음껏 소리 높여 부르며 2시간의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 모를 정도로 은혜롭게 기도의 시간을 마칠 수가 있었다.

“항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항은 성도의 기도들이라”(계 5:8)는 말씀을 기억하며 향기나는 제물로 금대접에 올리워 하나님께 나의 기도가 드리졌으며 충현성도들의 연속기도회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되어질 것을 생각하니 돌아오는 발걸음은 너무나 기쁘고 날듯이 가벼웠다.

♣ 지난 2월 23일 부터 시작한 직분자연속기도회는 교구별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8교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남미와 할아버지

조 현 명
(원로장로)

‘우리 충현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할아버지 충현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나는 지루하였다.
지금 몇 번째야? 몇 번(설교 대지) 남았어? 하고 물었다.
잠깐만 기다리면 설교가 끝난다고 하신다.
지난 해 졸업사진을 찍고 2층으로 올라왔다.

‘제2 우리 충현교회’이다.
그럼 그리는 시간이 있어서 좋았다.
나는 찬양대원이 되었다.
할아버지는 예수님 사랑하는 성가대원이 되라고 하신다.
어깨를 두들겨 주신다.
목사님이 쓰신 충현교회 성구를 읽으라고 하신다.
“하주여내여되나”라 하니 내려 읽으

라 하신다.

“하나이다 주를 사랑”이라 하니 오른쪽부터 내려 읽으라고 하신다.

‘자기가 예배 드리는 곳을 우리 충현교회(선교관 : 영아부), 제2 우리 충현교회(교육관 : 유치부)로, 할아버지가 예배 드리는 곳을 할아버지 충현교회(본당)로 부르는 것은 이치에 맞아! 그것 참 기특한 생각이야’라고 할아버지는 말씀하신다.

‘할아버지 충현교회’에서 찬양대에 서려면 8년이 지나야 한다고 한다. 그때가 되면 ‘할아버지 충현교회’에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예배드릴텐데 하고 기다려진다.

“나는 우리 할아버지가 제일 좋다”

- 할아버지 조현명 -

復活

변 춘 옥

(전도사, 탁아부지도, 출판부 부지도)

오늘도 난지도엔
가시 돌힌 바람이 불고 있었다

버림당한 물상들의
어린 몸은 더욱 여위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깊은 상처 우그러 안고
그저 속으로만 울고 있었다

해도
밤이 죽어가고 새벽이 눈을 뜨면
차가운 그곳에도 빛이 쏟아진다
그러면 거기
한 사람이 빛을 타고 다가온다

그의 얼굴은 검으나 아름답고
그의 손길은 거칠나 따스하다
희망 가득찬 그의 눈빛으로
절망한 물상들은 날날히 찾아지고
싸늘한 그들의 입술 위에
뜨거운 입맞춤

사랑은 온기를 싣고
삶을 다한 물상들의
남은 숨을 건져내어
꺼져버린 생명에 불을 놓는다

봄벌에
겨울 나무는 생기를 얻고
새순은
낙엽을 먹고 태어난다

불거진 것은 꺾여지고
패인 것은 돌아지며
빈 것은 채워지고
굽은 것은 곧게 펴져
너는,
본래의 충실한 모습으로 거듭나
너를 만든 이의 필요가 되라

♣ 징검다리 ♣

한달만에 30, 40, 50, 60을 넘나들며

성 봉 환

(목사, 19교구, 21교구, 초동5부 지도)

교구에 7개 전도회가 있는데 매달마다 월례회로 모인다. 각 전도회를 다녀보면 ‘아하 사람이 저렇게 나이들어가나 보다’라고 부담감이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다.

먼저 30대 여성도들의 모임인 마리아여전도회. 거기엔 어른만 오게 아니다. 입현 애, 안진 애, 손목 잡힌 애, 뛰는 애, 웅얼대는 애, 우는 애... 그렇게 엄마와 애가 같이 모인다. 애들 유치원

입학, 졸업, 국민학교 입학, 졸업 등이 큰 행사들이다. 결혼해서 주안에서 막 뛰어가는 인생을 여기서 구경하면서 주안에서 화이팅의 박수를 보낼 수 밖에. 애들과 맞먹는 분들이 요한 남전도회(30대 남성도), 바쁘고 바쁜 아!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분들이다. 그런데 이들은 체력이 있다. 강한 그들의 한 손엔 개도와 성경이, 다른 한 손엔 삽과 연필이 있지 않은가! 머리카락도 그런대로 까맣고,

의욕에 넘친다.

40대 루디아 여전도회. 애들이 아니라 사춘기에 접어든 아들 딸 땀에, 입시생 자녀땀에 기도하고 싶어하며 정성의 기도를 눈물로 아뢴다. 계속되는 인생항로에 벅바람에 몰아치며 지나가는 스릴을 주 안에서 맛보시는 분들이다. 안정 속에 번영을 찾으며 여전히 의욕에 부풀고, 사회와 교회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 어디 이 분들만 그런가? 베드로남전도회(40대 남성도) 역시 베드로답다. 열정적이며 자리를 잡으며 본격적인 일꾼들이세다. 머리가 희끗희끗해지며 머리모양이 각자의 개성을 드러낸다.

50대 에스더여전도회. 자녀들이 제발 제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결혼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건강이 새로 차아가 난다. 성경읽자고 하면 가방에서

무릎 부시럭부시럭 하면서 꺼내는데 그게 돋보기다. 염색한 분들이 많다. 60대 한나여전도회는 어떤가? 손주들 얘기를 하시는 저들은 이 땅의 어른들이다. 무곡 찬송가를 돋보기로 본다. 계단 오르기가 숨차고 허리가 퍼지지 않은 분들도 보인다. 50대 이상의 남성도들의 모임인 바울 전도회는 이 바람 저 바람 겪은 인생의 노익장들이세다. 머리는 반백, 이는 틀니, 눈에는 돋보기 등으로 인생의 단풍이 울긋불긋하다.

여행을 하듯이 한달새 인생의 여들과 가을과 초겨울을 넘나들 때마다, 일만 무성한 무화과가 되지 말고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남기라는 주의 음성이 마음의 컷전에 쟁쟁하다.



성찬식

교회는 지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보내며 지난 주일 I, II, III, IV부 예배시간에는 성찬식을 가졌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시간이 되었다. 부활절을 앞두고 거행된 성찬식에서 성도들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흘려 돌아가신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와 회개와 결심의 시간들을 가지며 큰 은혜 가운데 성찬식에 참여했다.

다함께 기도합시다

◆ 금주에 기도할 제목 ◆

1. 원로 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 김창인 목사님 : 4월 3일(주일) 호주 부활절연합집회 인도
· 신성중 목사님 : 4일(월) 수도노회 여전도회 총회설교(충현교회), 목회자세미나, 충현기도원 사모수련회 인도, 5일(화) 세계 한인목회자 세미나 개최예배 설교(제주영락교회), 8일(수) 연세대학교 채플설교(연세대학교 대강당)
2. 교역자들과 장로님들에게 건강과 능력을 주시사 잘 감당케 하옵소서.
3. 제2교육관 공사가 하나님의 은혜중에 잘 진행되게 하시고 시험이 없게 하옵소서.
4. 청지기훈련이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시며 모든 직분자들이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5. 북한과 중공에 복음의 문을 여시사 공산주의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6. 이 땅에 불의와 부정이 사라지게 하시며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 독일주재 육호기 선교사 ●

불경기로 모든 것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바쁜 연초를 보내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하심이 우리 충현교회와 세계선교위원회 그리고 선교회원님들 각 가정과 사업체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충현의 식구들로부터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으면서도 이에 보답하는 좋은 소식을 자주 보내드리지 못해 늘 송구스러운 마음이 제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본 소식을 많이 전할 수 있을까 늘 생각을 하지만, 별다른 것없이 시간만 보내고 자신의 무능과 나태를 후회하며 부끄러움 속에서 고요히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만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충현의 식구들의 그 뜨거운 사랑에 실망을 주게 마시고 저들의 기도소리를 들으사 아름답고도 귀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이것이 저의 기도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충현의 식구들의 기도와 사랑의 뜨거운 마음으로 저를 지금까지 붙들어 주셨음을 믿고, 하나님과 사랑으로 기도하시며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감사 드리옵니다.

1. 현지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세계는 탈냉전에서 대화합 시대라고 말하지만 지금은 경제전쟁 시대라고 불리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현재 세계정세를 말할 때는 경제를 빼고서는 말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정세를 잘하고 못하고는 경제불황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 국민들이 정치가들에게 점수를 주기 때문입니다.

요즘 독일을 비롯한 유럽 각 국가들의 분위기는 잔뜩 찌프린 호린 날씨와 같이 '침체와 불안'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지금 독일이나 서유럽에서의 관심사는 지난 독일통일이나 유럽통합이라는 거창한 구호가 아닙니다. 전세계적인 심각한 불황을 어떻게 타결할 것인가가 핵심적인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는 제2차 대전 이래의 최대 불황으로 유럽 전역을 휩쓸고 있는 10%가 넘는 높은 실업율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더 긴급한 의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독일은 통일의 후유증을 지금까지 겪고 있기에 1945년 독일분단 이래 최악이라는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독일경제를 보고, 1933년 히틀러가 집권할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와 흡사하다고 서유럽 국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얼마나 급박한 경제 상태에 처해 있는가를 실감케 하는 것은 독일의 대기업의 감원규모가 엄청나게 큰 것에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생산으로 유명한 벤츠가 1만 5천명, 지멘스 4천명, 폭스바겐 1만 3천명, 루프탄자 6천명 등 전후사상 최대라 할 만큼 감원을 지난해에 하고도 지금도 계속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은 임금을 동결해도 좋으니 재발 붙어 있겠만 해달라고 아우성이며, 이제는 고임금으로 경쟁력을 상실한 회사나 공장들은 폐업을 하는 곳이 계속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독일연방 범죄청에서는 독일 승용차 도난이 작년에 비해 10% 증가했다고 발표한 것을 보면, 92년도에는 131,000건에 비해 93년도에는 14,057건으로 10% 증가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도난건수의 50%는 중부독일, 베르린 등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 지역들이 한국교도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중부독일과 베르린 시가 도난순위 1,2위를 차지하고 있는 곳입니다.

독일의 불경기는 한인교도들의 생계와

사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주로 요식업과 가게를 운영하는 교도들이 문을 닫기도 하고, 식당들은 파리를 날리는 실정이며 교회에도 헌금율이 떨어지니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 이런 선교활동을 했습니다

· 1월에는 공동의회, 제직임명과 각 부서조직, 그리고 교인들의 주소록을 발간했습니다. 작은 교회이지만 모든 것을 거의 혼자 해야 되기에 정신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 2월 28일부터 3월 3일까지 유럽목회자 세미나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있었습니다. 유럽 여러 나라에서 선교사역과 목회하는 교역자 70여명이 참석하여 서로 목회와 선교정보를 나누면서 선교와 목회에 큰 도전을 받는 모임이었습니다. 감사에는 한국에서 오신 유영규 목사님(상도제일교회)과 이종표 목사님(한신교회)과 박종순(충신교회) 목사님이었습니다.

· 3월 28일부터 31일까지 남부독일 아우스부르크 한인교회(김한우 목사 시무)에서 개최하는 수양회 강사로 초청받고 말씀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알려 드립니다

하나우한인교회를 사임하고 비스바덴한인교회를 4월 3일 주일부터 시무하기로 했

습니다. 비스바덴교회는 본 선교사가 77년 5월 8일 개척하여 10년간 시무하다가 교회가 갈리는 아픔을 가졌었고, 교우와 교우들 간에 갈등이 심했던 교회로서 그동안 근 7년동안 교역자가 갈리는 여러 가지 아픈 상처와 시련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교역자가 떠나면서 이 비스바덴교회에서 제게 찾아와 지난 일들을 반성, 회개하며 새로 개척하는 마음으로 다시 저를 청빙한다고 간곡히 부탁하여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교회가 하나가 되고 교회의 상처들이 치유되는 것이 하나님께 기뻐하는 일이며 교포사회에서도 귀감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되어 제가 승락하였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의 체력과 영력의 한계점 그리고 예배시간 문제로 프랑크푸르트장로교회와 비스바덴한인장로교회만 시무하기로 했습니다.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우교회도 후임이 결정이 잘 되었음을 감사함으로 알립니다.

4.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 4월 3일 부활절에는 교회연합으로 프랑크푸르트 오스트 파크에서 새벽 6시에 모입니다. 본 선교사는 예배 때 사회순서를 맡게 되었습니다.
2. 4월 11일 프랑크푸르트 교역자 정기회의가 본 교회에서 회집됩니다.
3. 4월 18일부터 20일까지 유럽노회가 체코 프라하에서 회집됩니다.
4. 4월 27일, 28일 충현선교지 방문 및 성지순례단 안내 및 영접하는 일
5. 5월 8일 비스바덴교회 교회설립 17주년 기념예배와 안수집사, 권사 임직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6. 5월 16일부터 19일까지 월간목회 발행인 박종구 목사님을 강사로 크로스웨이 지도자 세미나를 개최하게 됩니다. 모든 진행을 본 선교사가 주관해야 될 형편입니다.
7. 6월 3일부터 5일까지 시카고 아카데미 장로교회(담임:심광해 목사)의 부흥회 강사로 그리고
8.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산호세셔부 장로교회(담임:김광수 목사)에서 각각 부흥회를 인도하게 되겠습니다.
9. 프랑크푸르트와 새로 시무하는 비스바덴교회 부흥을 위하여
10. 본 선교사와 가족들의 영육이 강건함으로 선교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선교지에서 온 소식

